

빛과 신명의 생태시학

박두진의 자연시 연구

이영섭

(경원대학교)

1. 오이코스¹로 향하는 길

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달과 더불어 자본과 소비의 욕망에 사로잡힌 광포한 사회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 물질의 풍요와 생명 연장을 대가로 극도로 황폐해지고 오염된 생태 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인류의 생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지만, 종말로 치닫는 전지구적인 재앙을 막을 새로운 삶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생태 위기 상황 속에서 21세기는 지역과 계급의 문제를 넘어서 전지구적으로 생명의식을 고양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시학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한국 문학론의 한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은 생태지향적 인식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생존 근거를 위협하는 생태계의 훼손과 오염에 대한 항의 담론으로서 지구의 환경 훼손과 오염을 비판하는 시론을 낳았다. 이 환경시론은 자연 생태계의 엄청난 파괴 상황과 인간 존재의 부정이라는 극단적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환경이란 개념이 함의하고 있듯이 생명을 주축으로 볼 때 환경은 그것을 둘러싼 조건이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 개념에 머문 생태 의식은 무력한 자의식을 부정하는 모더니즘의 인간 중심적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

【주요어】 오이코스(oikos), 환경, 생태, 자연, 총체성, 초월적 합리성, 시원성, 빛의 감각, 신명, 실존, 생명윤리, 영성, 자연시

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증언과 비판적 성찰에서 더 진전된 생태 인식은 현대적인 삶의 문제를 생태계 파괴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생태계 개념은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포함하는 생물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의미의 확장을 내포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한 생태이론은 서정시의 은유적 사고를 생태적 세계, 생명공동체의 원리로 제시한 점에서 환경이론에 비해 한층 구체적이다. 왜냐하면 환경이 원자적·단편적 세계인식을 반영하는 데 반해, 생태계 개념은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세계인식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계 개념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들의 관계가 대립을 넘어선 공존이라는 새로운 관계론적 인식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물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개념이다. 따라서 서정시의 은유적 포괄과 초월을 생명적 유사성과 친화적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는 생명공동체의 원리는 아직 인간의 존재론적 구별과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대상 인식적 차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드러난다. 따라서 생태 위기의 종합적 현실 문제를 자연의 황폐로 인식하는 태도가 보다 더 진전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자연에 의존해서 사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대립되고 정복되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물질과 생명을 구별하는 형이상학적 벽이 허물어져 가는 일원론의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총괄적으로 지칭함으로써 총체성을 띠게 되고, 인간이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구별해 온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자연관, 즉 생태 우주적 비전에 비추어볼 때 환경이란 생태계의 한 측면을 지칭하며 생태계는 자연의 한 측면을 가리킨다고 보는 자연관의 입장에 도달할 때, 우주의 모든 현상은 단 하나의 동일한 존재, 즉 자연의 다양한 측면으로서 각 개념이 자율성과 아울러 의사소통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총체적이고 단일적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전체로서 하나인 자연은 과학자가 아니라 시인이 말하는 자연이며, 철학자가 논하는 개념화된 자연이 아니라 종교인이 체험한 살아 있는 자연이다(박이문, 2000: 68-77).

생명의 한 종으로서 근시안적인 인간 중심의 이념이나 도구적 사고를 극복하고 우리 삶의 생태현상을 자연의 맥락에서 보다 원시적(遠視的)이고 다원

적 입장에서 조화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오늘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1939년 『문장』지에서 정지용의 추천을 받으면서 ‘신자연’을 구가한 시인으로 주목된 박두진이 고통과 수난의 근대사 속에서 감상과 허무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시종일관 빛의 감각과 신명의 정서로 자연 생성의 생명감을 추구해온 시적 편력에서 한국의 근대 서정시가 이루어 놓은 생태시학의 한 전범을 엿볼 수 있다.

2. 어둠을 대응하는 빛과 신명의 정서

인간의 문화 발전에 따라 형성된 사회와 사회 구성원이 이루어 놓은 삶의 방식과 이념은 현실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적 실재성을 지닌다. 역으로 자연의 한 부분인 유기적 존재로서 시인이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미적 경험은 그 시대의 윤리와 지배적인 이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초월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늘 남아 있기 마련이다. 특히 합리적 이성을 바탕에 둔 근대적인 사유가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을 지나치게 물질과 도구적인 관계로 대상화하는 폐단이 심각하게 반성되는 시점에서 심미적 감각과 정서로 초월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시적 사유는 인간의 황폐한 의식과 자연의 황폐가 맞물려 삶의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시의 새로운 방법론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암흑기 속에서 정지용은 『백록담』에 실린 산수운일의 주옥같은 시들을 실었다. 정지용은 그가 겪은 근대 계몽주의 문화의 모순이 빚어낸 시대적 어둠과 고독의 정서를 동양의 관조적 자연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새로운 자연 정서를 번역해 내는 데에 성공했다. 그가 박두진의 「묘지송(墓地頌)」과 「향현(香峴)」을 추천하면서 ‘신자연’이라고 부른 것은 박두진의 새로운 자연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구의 근대성인 타자의 폭압으로 인해 훼손된 동양인으로서의 비극적 정체성을 속박한 현실에서 한 발 물러선 여백과 운일의 태도로 표백하면서도 ‘또 다른 태양의 원리’를 모색 궁리하던 정지용

에게 박두진이 시대적 어둠에 맞서 빛의 감각과 신명으로 미래의 시적 비전을 제시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경이가 아닐 수 없었다.²⁾ 전통적 관조와 비애의 감정을 물리고 활화산 같은 자연 언어를 구사한 박두진이 조지훈이나 박목월보다 가장 먼저 정지용에게서 시 추천을 완료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박두진이 초기 시에서부터 후기 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빛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나 신명의 서정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견실한 기독교적 신앙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³⁾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빛을 지향하는 박두진의 자연시는 종교의 목적론적 관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박두진의 시적 태도는 그가 현실에서 감지하는 빛과 인상적으로 감각된 자연 묘사를 통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감성을 활기 있게 창조해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인상파 화가들이 종래의 정관적 원근법에 길들여진 사실주의의 진부한 화풍에 반발하여 빛을 주관적인 프리즘으로 분해해서 원색의 신선함과 생동감을 새롭게 되살려낸 입체적 감각과 흡사하다. 박두진의 시를 일관하는 빛의 심상은 죽음의 음영이 짙게 드리워진 동양적인 은일의 정서와는 뚜렷이 대비된다. 그의 정서는 안정된 예술적 구도 속에서 적극적으로 어둠을 뚫고 살아 움직이는 강렬한 생동감을 인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생동하는 빛과 사물은 근대적 이성주의에 매몰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영성적 시원성(始原性)을 들춰내어 자연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감각과 이미지로 작용한다.

「묘지송」은 시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봄별 속에서 누워있는 주검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그 주검들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배경화하고 오히려 하이얀 축투의 빛남과 향기조차 감각적으로 전경화하면서 주검에 대한 애상 대신 시

2) 지용은 「또 하나 다른 太陽」이라는 글을 통해, 그가 태양의 물리적이고 초월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모순과 비가치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이상적 삶의 원리를 추구하고자 한 미학적 태도를 고백하였다.

3) 박두진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 신비가들의 경건주의와 청교도적 사상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신대철의 「박두진 연구 15」 논문을 참조할 것.

의 초점을 무덤 속을 화안히 비춰줄 태양을 기다리는 미래의 시간에 맞추고 있다. 시인이 삶이 아니라 묘지를 노래하게 된 계기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시의 문맥은 분명히 ‘살아서 싫던 주검’으로 그려낸다. 주검이 오히려 싫지 않게 보임은 그가 처한 외부의 삶이 극단적인 부정적 윤리로 전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박두진은 현실을 어둠과 설움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의 미래에 대한 신념은 밝은 빛을 기다리는 주검이 향기를 풍기고 그 무덤 옆에 새가 울고 꽃이 피어 있는 열락의 공간을 아주 인상적인 미의 상황으로까지 그려진다. 이 시의 특징은 어둠과 빛의 감각을 대비시킬 뿐만 아니라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자연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인상적인 신명의 정서로 표현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박두진은 초기 시부터 부정적 현실을 비판적 태도나 비극적 감정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의 시적 언어는 근대 계몽주의의 주지적 토대를 둔 세련된 감성에 있지 않고 자연이 지닌 근원적 원리로서의 생명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실의 문제를 진화론적인 윤리에 대해 비판하는 부정의 정신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는 시의 대상을 거시적이고 조화를 지향하는 자연의 존재 차원으로 이끌어 투시함으로써 시의 예술성을 사회 윤리적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생태 윤리적 자연을 향해 열어 놓게 된 것이다.

「묘지송」이 향존하는 빛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에 대한 초월적 회구를 통하여 주검과 어두운 현실에 대한 재래적 감상을 밝은 비전으로 바꾸어 놓았다면, 「향현」에서는 시의 화자가 구름을 타고 오른 천상적 경계에서 무수한 짐승의 무리들을 품고 있는 산과 숲을 조망하면서, 약육강식의 부조리가 누거만 년 되풀이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달혀진 자연에 대해 답답함과 의분을 표현한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업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火焰
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밍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향현」 부분

화자는 오래 용납해온 죽음의 윤리가 삶의 윤리로 전복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확확 치밀어 오는 화염’을 갈망하는 강한 어조로 호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화염으로 정화된 세계에서 핏내를 잊은 짐승들이 서로 공존공생하는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침묵하고 있는 산에게 반문하는 대화체의 이 시에서 화염의 이미지는 핏내를 잊게 하는 초월적 통과제의를 매개하는 역동적 사물로 작용한다. 즉 화염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초월적인 에너지로서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며 사는 군생들의 죄성을 태워버리는 강한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시 「향현」은 악육강식이 현존하는 사회 진화론적 질서의 종말과 서로 모두 함께 삶을 화해롭게 누릴 수 있는 영성의 불로 정화된 세계에 대한 시인의 강렬한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세계가 시인이 추구하는 신명이 넘치는 자연의 질서이다.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은 이른바 암흑기로 정의되는 일제 말기에 씌어진 초기 시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을 맞았지만 남북이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된 8·15 해방 공간에서 쓴 시 「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해는 더 이상 고독과 적막이 반복되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 꿈으로 몽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자유를 쟁취한 해방 공간에서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뼌 얼굴’로 만나는 감각적 현존재로서 인식된다. ‘해야 솟아라’의 명령과 반복의 어조로 빛의 파장을 시 전편에 강렬하게 확장시켜 발산할 만큼 8·15 해방은 빛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시인에게 벽찬 감격을 안겨 주었다.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의 이 부분은 박두진이 그의 시에서 ‘신명’을 새로운 전통 정서로 수용하게 된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박두진은 한국시의 전통적 서정을 해학(혹은 풍자), 애상, 신명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그 스스로 습작기에 애상의 정조를 바탕으로 민요조의 시 10편을 실험해 보았으나, 애상은 시의 분위기를 청승맞은 감상으로 침잠케 하는 소극적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애상의

정조를 접어 버리고 신명으로 서정시의 새로운 바탕으로 삼았다.⁴⁾ 물론 박두진이 신명을 택하게 된 데에는 그의 개인적 성향과 그가 자리한 시대적 성격이나 신앙적 풍토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어쨌든 박두진은 시에서 되도록 비애의 감정을 배제하는 대신 시원적 자연의 생명감과 연계된 빛과 신명을 시 정서의 바탕으로 두고 시 창작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정서인 신명에 대한 그의 남다른 인식은 그의 시를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형상으로 특징 짓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가치와 윤리가 전복되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고 그의 시를 자연시로서 서정과 사상의 폭과 깊이를 무한히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 띄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해방을 맞이하는 해오름의 환희와 희열을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낙원의 필연적인 도래로 귀결지으려는 박두진의 시의식은 시의 예술적 공간 속에서 빛의 이미지가 구조해낼 수 있는 절정의 장면을 그려내었다. 당시 해방정국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폭력으로 지배한 경험이 없는 피지배 민족의 일원으로서 해방의 감동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자연의 질서를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사회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층위에서의 통일과 화해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때 해의 이미지는 밖으로부터 솟아 오르는 외부적인 힘이기보다 신생 자유민이 스스로 발휘해야 할 '애띤 얼굴, 고운 빛'으로서 미래지향적 주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해」는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패권주의를 초월해서 자유민으로서 누구와도 함께 더불어 삶을 누릴 수 있는 폭넓은 평화 공존의 윤리를 표상하는 상

4) 박두진의 전통적 정서에 대한 인식은 박두진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청취한 것임.

정적 존재다. 따라서 이 작품은 8·15 해방기에 계급적 갈등과 반목으로 분단의 위기를 느끼고 있던 박두진이 보다 폭넓은 이념으로 통일된 삶의 윤리와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당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깊게 연결된 시상으로 볼 수 있다.

3. 생명 윤리와 실존적 대결

박두진이 시 속에서 즐기차게 추구한 낙원에의 회귀와는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닫는 해방 이후의 한반도의 혼돈된 정세는 외부적으로는 미·소 양 대국을 중심으로 대치한 냉전 이데올로기와 내부적으로는 각 정파들이 서로 정치적 패권을 잡기 위해 야비한 경쟁을 벌이면서 중상 모략과 암살, 음모 등 암투를 일삼고, 국내외로 불안하던 정국이 마침내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인한 초토화된 사회는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한민족을 유례없는 생존의 위기로 몰아 넣으면서 국토분단이라는 처절한 비극을 초래했다. 동족 사이의 전쟁으로 민족 정체성의 훼손과 더불어 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한 독재와 테러리즘과 부정·부패는 신생 독립 국가의 모든 규범과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다. 특히 전후 분단 이념과 독재로 말미암아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 횡행하면서 박두진의 시가 지닌 빛의 이미지는 점점 생명과 자유 윤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타락하는 또 다른 현실의 어둠과 대결하는 시의식으로 작용한다. 제국주의의 거대한 폭력이 지배하던 극단적 어둠 속에서도 순수한 미래를 낙관하던 신명의 정서는 민족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폭력과 억압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시적 주체의 실존적 고뇌와 의분으로 전환되면서 부정과 불모 현실에 대한 저항과 또 다른 극복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일히도 새도 없고,
 나무도 꽃도 없고,
 쟁 쟁, 永劫을 별만 쬐는 나 혼자의 曠野에

온몸을 벌거벗고
 바위처럼 꿰어,
 귀, 눈, 살, 터럭,
 온 心魂, 손 靈이
 너무도 뜨겁게 당신에 닿습니다
 너무도 당신은 가치히 오십니다 -「午禱」 부분

대부분 6·25 전쟁이 계속되던 대구 피난 시절에 씌어진 시를 모아 출간 시집 『午禱』(1952)는 동족상잔으로 인해 폐허가 현실을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은 적막한 광야로 내몰린 탕자의 상황으로 비유한다. 화자는 해방의 기쁨을 동족상잔의 피로 얼룩진 폐허로 만들어버린 상황을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신앙적 참회와 생명 윤리적 가책을 느끼면서 동족끼리 갈등을 빚는 새로운 어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생명 윤리에 대한 더 근원적인 사색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는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과 비극의 역사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주제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6·25 전쟁과 전후에 전개되는 사회 부조리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차원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당시의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가 우리 스스로 새로운 생명 윤리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련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 한마리만 푸른 새가 날아 오르라. 碑. ... 한마디만 길다랗게 소릴 뽑으라.

千年 二千年을 三千年을 조으는 것, 이끼마다 눈이 되어 꽃잎으로 피라. 이슬 처럼 꽃잎마다 녹아 흐르면, 이득한 하늘 밖에 별이 내린다. -「碑」 부분

旗! 다시 오른 旗폭은 찢겨지지 않는다. 펄펄펄펄 旗폭에서 빗발들이 흐른다. 펄펄펄펄 旗폭에서 꽃가루가 흐른다. 旗를 向해 우리들은 行進을 한다. 파다 아하게 모여 들어 새로 뽑은 습떡. - 손뼉들을 흠뻑 친다. 하얀 새를 날린다. 눈빛같은 하얀 새뿔 파닥파닥 날린다.
 찬란하게, 우리 앞에 나부끼어야 한다. -「旗」 부분

오랜 전통을 지니고 수난의 역사를 묵묵히 살아온 민족의 정체성과 자유를 비유하는 시 「碑」와 「旗」에서처럼 박두진은 온전한 자유의 회복이 지연되고, 오히려 전화 속에서 민족의 극단적인 분열과 동족상잔의 처절한 죽음의 현장과 상처를 목격하고 시인으로서의 깊은 고뇌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의 회복과 그 참된 삶의 도래를 갈구하는 보다 강렬한 생명의 부활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빛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위축하는 어둠에 대응하여 그의 시에 초월적인 미적 공간을 부여하는 절대적인 생명의 힘으로 작용한다. 무구한 시간을 묵묵히 지탱하고 서 있는 비의 견고한 모습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생명의 의지력을 감지하는 화자는 그 비의 내면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푸른 새의 비상과 교묘한 음성성을 고대하며, 비에 새로 돋는 이끼와 별의 교감조차 느낀다. 이제 수직적 초월을 의미하는 새롭게 올린 기는 결코 찢겨지지 않는 시인의 내면적 단련을 통과하고 있다.

박두진의 이러한 내면적 단련은 시집 『거미와 星座』의 자서에서 “스스로의 상처의 출혈을 혀로 핥는 양지의 맹수처럼 때로는 거센 눈보라와 비바람을 헤쳐 가는 작은 새와 같은 모습으로 그 정신적 기복의 淋漓한 자취가 생생하게 인각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다 처절하고 견고한 내적 성찰과 더불어 부정적 현실의 또 다른 어둠에 대해 새로운 응전을 준비한다. 온전한 자연 생명성의 회복을 기다림의 이미지로만 추구하던 박두진의 시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자연과 생명 윤리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그의 시가 자연시로서 미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더 농밀하게 다루는 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6·25 전쟁과 4·19 혁명에 이르는 격랑의 10년을 겪으면서 삶을 억압하는 불의에 대해 정면으로 투쟁하면서, 현실에 밀착된 성찰과 실천이 담보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의 회복과 자유가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현실참여 의식을 보여 주었다. 4·19 혁명 시집에 실린 「우리들의 기빨을 내린 것이 아니다」는 생명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만이 어느 한 순간에도 내려질 수 없는 절대절명의 것임을 밝힌 대표적인 시이다. 이 시에서 박두진은 당면한 현실의 부정과 불의 앞에 자유의 부단한 행진을 절규하면서 혁명의 전진이 어떤 장벽이 닥치더라도 부단히 지

속된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 근원적 생명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추구하는 박두진은 행동주의자로서의 현실참여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박두진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발간된 시집 『거미와 星座』(1962), 『인간밀렵』(1963)에서처럼 지상에서 육신의 질곡에 신음하면서도 하늘의 삶인, 빛을 갈망하고 지향하는 고뇌의 인간상과 신앙적 존재로서 지상윤리에 대한 대결의 식으로 나타난다.

새까만 內臟,
 새까만 內臟을 겹겹이 열어 피묻은 日沒을 빨아 먹고,
 새까만 內臟을 겹겹이 열어 피묻은 後光을 빨아 먹고,
 새까만 內臟을 겹겹이 열어 피묻은 노을을 빨아 먹고는,
 그리고는 黃昏,
 唐香墨처럼
 鮮명한
 까만 黃昏을 뿜어낸다. -「거미와 성좌」 부분

장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시는 거미를 지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지상으로 유배된 '징그러운 흑갈색의 음모'를 지닌 부정적 존재로 해석하고, 거미의 생리를 특유의 감각과 형이상학으로 결합하여 당시의 어두운 상황에 대한 실존적 인식을 보여 준다. 시의 대부분은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치절한 정적' 속에서 다른 생명과 빛을 완전히 빨아먹고 심지어 죽음의 황혼을 뿜어내는 거미의 존재론적 부정성을 부각한다. 거미의 부정적 생리는 음모와 간음과 계약의 공중작업에 혼신의 정력을 소모하는 허무의 존재와 온갖 악으로 구성된 거미줄로 여린 생명들을 걸어 까만 잇발로 모조리 짓씹어 먹어치우는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스스로의 생리를 고통스러워하는 모순의 존재 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시의 말미에 이르면 어둠의 존재인 거미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천상의 성좌를 밤새 목상하다가, 문득 범나비로 변신하여 천상의 자유를 누리는 황홀감에 젖는다.

부조리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열려진 세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대

인의 실존적 고뇌를 거미와 성좌의 양극단 사이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 시는 결국 근대 자본주의의 속악한 삶의 생리에 젖어 있는 모순된 존재로서 당시의 한국인이 처한 정신적 황폐와 그런 사회악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내적 초상화를 우의적으로 그린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맞닥뜨린 황폐한 정신의 극단적인 위기를 근원적인 죄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이 시는 어둠을 극대화시켜 거미와 현대인의 생리를 인상적으로 접합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설정된 거미의 존재는 결코 시적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인 타자와의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를 비롯해 이기적인 몽상에 사로 잡혀 있는 현대인의 자아에 들어 박혀있는 반생명적인 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표상한다.

이 시기에 씌어진 박두진의 자연시는 좀 더 시대적인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 밝고 긍정적인 절대 자연의 수직적 높이로부터 모순과 부조리가 만연된 지상의 부정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새로운 해체의 과정을 두루 거친다. 이제 박두진 시의 영토는 사상적 실재와 시적 실재의 통합을 이루면서 시가 현실에 뿌리를 박을 수 없는 한 시의 생명이 고갈될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리얼리즘의 인식 경계로까지 확장되었으며, 그 전환의 계기를 이루는 대표적인 시로는 이 「거미와 星座」를 비롯하여 「山脈을 간다」, 「어느 별판에서」, 「봄에의 激」 등이 있다(박두진, 1970: 155).

『거미와 星座』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발간된 시집 『인간밀림』은 박두진이 자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1961년에서 1963년 사이에 쓴 작품들이다. 이 시집은 발표 시기를 미루어 볼 때,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를 겪고 난 직후 박두진 시의 변화 과정을 점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八月의 江이 손뻑친다. 八月의 江이 몸부림친다.

八月의 江이 고민한다.

八月의 江이 沈潛한다.

江은 어제의 한숨을, 눈물을, 피흘림을, 죽음들을 기억한다.

어제의 분노와, 비원과, 배반을 가슴지닌
 배암과 이리의
 갈라진 헛바닥과 피문은 이빨들을 기억한다. -「八月의 江」 부분

박두진은 이 시기에 강을 소재로 한 일련의 시를 쓰게 된다. 그 시들에 나타나는 강은 인간 생명의 역사이며, 동시에 자연 생태계를 순환하는 역동적인 흐름의 한 부분으로서 중층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두진의 역사 의식은 계몽주의의 진화론적인 의식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간다」는 것처럼 보편적인 자연의 궁극적인 오이코스에 도달하는 초월적 순환성을 지향한다. 역사 의식을 넘어선 그의 강은 자연의 실체로 그의 몸에 덮이 썩워지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를 확대하고 죽이려는 적들의 만행을 몸에 각인하면서 바다를 향해 도도히 흘러가는 자연의 실체를 감각적인 인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자연의 근원적 생명 윤리는 인간의 실존 윤리나 사회 이념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바다가 부풀던 언덕의
 깃발이 썩는 것과
 외로운 등불이 썩는 것과
 비탈진 과원의
 능금이 썩는 것은 같은 때다

밤이 산맥을 포용하는 덩불의
 배암과 승냥이가 생식한
 입술과 뱃바닥을 스스로 저주하고
 사슬에 끌려 가는 눈별관의
 발가락이 썩는 것은 같은 때다 -「季節」 부분

같은 시기에 씌어진 또 다른 작품 「季節」을 보면, 이 시인의 현실 상황에 대한 글읽기가 어떤 범주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패의

사회 현실을 유기적 자연의 각 지체로 인식하는 시인은 현존의 시간을 모든 사물이 썩는 상황으로 보고 불의와 부패로 인한 자유와 소외와 위기 등을 모두 자연어로 환치시켜 감각화하는 동시에, 현실의 부조리를 어둠의 질곡에서 생식과 저주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연출하는 인상적 시간으로 표현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박두진은 현재가 냉혹하고 살벌한 눈벌판에서 썩음과 악행을 이끌고 종말의 심판을 향한 끝없는 유형의 시간임을 암시한다. 현실을 극단적인 어둠으로 진단하면서, 그 악과 대결하는 이념과 자연의 수난을 상대적 시간성 위에서 아우르는 시의 경향은 시집 『하얀날개』(1967)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도로서 시대적 수난과 시련, 투쟁과 희생을 감내하는 자화상을 그린 『사도행전』(1973)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 박두진의 사회 윤리적 태도의 견실성은 김지하의 시에 대한 '오적(五賊)사건 감정서'에 집약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박두진은 김지하의 담시 「오적」에 대한 검찰의 감정 의뢰에 시 「오적」은 부정부패에 대한 극히 일반적인 정의감과 불의와 비위를 미워하는 작가적 양심에서 쓴 것임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민주 비판적 영향의 잠재력을 과시한 좋은 표징의 시로 생각한다고 감정서를 제출했다.⁵⁾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영구독재를 획책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혹독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었다. 술한 원로 시인들이 독재의 편에 서서 독재에 항거하는 젊은 시인들의 참여시를 검열하고 참여시를 탄압하던 시기였다. 그 사건 이후 박두진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술한 억압과 통제를 받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의롭고 윤리적인 시인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다.

4. 포용무한의 사랑과 수석의 생명감

20여 년 지속된 독재정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으면서도 분단 이데올로

5) 박두진, 「오적(五賊) 사건의 감정서」, 『돌은 여전히 말이 없다』(신원문화사, 1996), 51~53쪽.

기로 인해, 정치적 혼란 속에 또 다른 군사독재가 연장되는 사회적 모순을 빚어냈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순의 연륜에 들어선 박두진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수석 채집에 본격적으로 몰두한다. 수석에 몰두하면서 빛의 무한한 생명감을 재인식하게 된 그는 현실의 어둠에 대한 대결 의식과 의분의 감정을 자연의 시원성을 향한 무한의 사랑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민족의 수난과 시민의 억압 속에서 근대 계몽주의가 빚어 놓은 황폐한 삶의 어둠을 두루 겪은 박두진에게 수석은 이제 자연의 목시적인 존재로서 탈인간의 새로운 대화 상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빛의 감각과 힘, 그리고 신명의 서정은 현실에 밀착된 실존적 유한자로서의 대결과 해결 의식에서 벗어나 수석의 자연성을 만나 새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사랑의 환희로 바뀐다. 그는 다시 본래의 무한하고 영원한 빛과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사물과 교감하고 자연과 화해를 이루려는 오이코스를 향한 긴 여정에 다시 들어선다. 시집 『포용무한』(1981)의 이름처럼 그는 자연과의 무한한 교감을 통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시적 조응의 화두를 찾은 것이다. 만년에 수석을 사랑하면서 얻게 된 시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박두진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문학과 시를 통한 사색에 새로운 존재론적 인식과 그 감성을 통한 새로운 심미적 가치와 표현의 진실을 획득하면서, 그 조형의 영역의 확대와 표현의 깊이를 실험했다. 신의 섭리의 근원을 통한 상징적, 즉물적인 표상과 자연 그 자체의 우주적 의미, 그것이 인간에게 재현해 보이는, 시적 무한성을 깨닫게 했다. 수석은 나에게 어떤 선형적인 체험을 얻게 했고,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율, 자연을 통해서 더 정신적이고 더 영적인 바탕과 그 예지의 근원을 일깨워 줬다.⁶⁾

수석은 박두진으로 하여금 존재론적 의미와 미적 가치와 진실성은 자연의 조형성으로 통일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연성이 구현됨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는 다양한 조형성으로 존재하는 수석들의 미적 차이성 속에서 우주의 무한

6) 박두진, 『잃어버린 돌의 고향』,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신원문화사, 1996), 107쪽.

한 선형적 존재성을 느끼고, 인간 중심의 유한한 인식이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초월적인 영역은 인간이 근본 바탕에 지닌 자연의 영성과 예지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조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땅의 일에 마음을 쓸 때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
너는 땅의 일에 골몰한다.

내 손이 겨우겨우 닿지 않을 만큼
언제나 단정하게 거리를 재어 갖는,

내가 가장 인간이고자 할 때
가장 나는 네 앞에 초라하다.

너는 언제나 반쯤만 눈을 뜨고
반쯤만 내 앞에 가슴 열어,

아주 영원히는 잊어버릴 수 없는 강의 언덕
그 바닷가 그 하늘의 별밭에 자유로 피어 서서,

내가 빠지는 감정의 푸른 늪
내가 오르는 사상의 정상을 조용히 지켜 본다.

너는 언제나 황홀로 거기 섰고
나는 언제나 네 앞에 비애로 홀로 있다. -「靜」

수석을 소재로 한 『水石列傳』, 『續·水石列傳』, 『水石戀歌』 등의 일련의 시집에서 박두진은 창조적 생명에 대한 경이감과 전율을 느끼면서 자연 경계의 바깥에 나와 돌밭에 뒹굴고 있는 수석의 형상에서 자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가 잃어버린 오이코스(ἑὸς)를 그리워하고 귀의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다. 수석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의 근원으로 귀의하려는 의식이 박두진의 후기에 농밀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격랑하는 한국 근대사를 살아오면서 무한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수석이 돌밭에서 외롭게 덩굴며 시종일관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돌이 제 모습을 진실하게 현상하는 자연을 그대로 닮고 있음에 황홀해 한다. 반대로 본래의 자연성을 잃고 속악해 질대로 속악해진 근대 인간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시적 자아는 인간에 대한 상대적 비애를 느끼게 된다.

욕망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도구로 삼는 인간의 자아와 달리, 모든 의미를 그를 바라보는 타자를 향해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의 내면을 무한이 열고 있는 진정한 자기 초월성을 지닌 수석은 박두진 시의 화자인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존재인 '너'로 종종 불리워진다. 박두진의 시에서 그가 믿고 있는 신앙적 존재로서의 신은 대체로 당신이란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수석연작의 시편에 수석만은 빈번히 너로 호칭된다. 수석을 대하는 이 근칭적 호칭은 범신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적 교감을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친화적 감정을 이루는 언어이다. 이러한 친화적 관계는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지향하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박두진의 시에서는 종종 돌밭과 별밭이 대비되고, 삶의 별판에서 실존을 자각하는 시적 자아는 스스로 돌과 별이라는 중층적 이미지를 병치시키면서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그의 입체적 시각을 반영해 준다. 그의 상상력 속에서 돌은 본래의 빛이나, 혹은 타오르는 별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다만 그것은 삶의 별판에서 있는 자아처럼 어떤 자연 조건에 의해 하나의 사물로 변화된 채, 그의 목전에 나뭇의 형상과 침묵으로 잠시 서 있을 뿐이다. 돌은 침묵으로서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대화를 받아 주는, 영성을 환기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박두진은 돌을 만나는 순간마다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도취와 황홀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이미 낡아 빠진 생활 윤리와 규범 속에 자연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시인의 위기 의식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날새도 바람결도 얼어서 박히고
 눈물도 옛날도 얼어서 박히고
 꿈도 사랑도
 달밤도 그 아침 해도 얼어서 박히고
 별들도 무지개도 얼어서 박히고
 만남과 그 헤어짐
 남과 죽음
 영화와 그 몰락
 아우성도 환호도 얼어서 박히고
 비수와 꽃
 깃발도 그 개선가도 얼어서 박히고
 얼어서 박히고... -「水壁無限」부분

박두진의 시에서 수석은 이처럼 물질로서의 돌이면서 정신과 예술로서의 돌이며, 나아가 영적인 신앙의 차원에 존재하는 돌이라는 중층적 의미를 지닌다. 그에게 있어 수석은 자유와 시련, 비애와 꿈, 사랑 등의 인간 감정과 달과 해와 별과 무지개 같은 빛과, 삶과 죽음, 역사와 이념, 신앙 등 온갖 정서와 사물, 사상과 관념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자연의 총체성이다. 시에 형상화된 자연의 총체성은 다양함과 통일 속에서의 조화로운 리듬을 전제로 하는 초월적 아름다움을 표상한다. 그리고 현재 그 자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견고한 돌 속에 투영되어 있다. 돌의 견고성은 영원성과 그것을 지향하는 단단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시인의 영원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자연 현상이 돌에 얼어서 박혔다는 해석은 언젠가는 자연의 거대한 질서와 힘에 의해 그 얼어 박힘이 반드시 풀어질 것을 예언하는 한편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존재 현상들이 고유한 형상 속에서 존재하는 차이들이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주체의 고독한 심리와 깊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련의 수석 시편들은 박두진이 추구했던 생태유기체론적 자연관 속에서 원초적 자연과 근대적 인간과 낙원을 지향하는 그의 초월적 신앙이 하나의 완성된 미적 실체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박두진의 시에서 반영된 자연은 감각체이면서도, 단순한 사물로서 대상화한 감각의 실체에 머물지 않는다. 어둠과 대립되는 빛으로 상징되는 자연은 대상의 차원을 벗어나, 스스로 사물을 구성하는 주체적인 힘이며 존재 그 자체이다. 한편 빛으로 감각되는 자연은 자율적인 운율적 질서 속에서 전개되는 신명나는 정서적 느낌 자체이기도 하다. 그가 상상하는 빛은 인간의 문화사 속에서 종종 기독교 신앙으로 일컬어지지만, 자연사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시원성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상적 인식은 그의 시를 생동하는 감각과 신명의 서정을 풍기는 인상적인 자연시로 만들어 내는 상상력으로 작용한다. 빛을 바탕으로 둔 그의 사물에 대한 감각과 인식은 자연의 절대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사물을 신명이 넘쳐흐르는 생명감으로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그의 시에 나타나는 빛의 감각과 정서는 현실에 대한 생태이념을 환기시키고 더불어 시의식을 역사나 사회 윤리적 이념의 범주에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자연시는 내면에 지니고 있는 신앙을 토대로 한 자연의 영성에 대한 믿음과 밀착되어 있다.

그가 형상화한 빛의 감각과 신명의 정서는 시기에 따라, 자유에 대한 기대감과 환희, 그리고 어두운 현실에 대한 실존적 고뇌와 극복 의지, 후기에 와서는 수석에 대한 초월적 사랑 등으로 병치되어 나타난다. 그의 시는 생명 윤리로 일관된 일원론적 자연성을 추구해왔으므로, 그 각 부분의 시편들은 시대 이념과 감정을 초월해서 순수한 예술적 총체성 띠면서 시 전체가 자연시로서 통일성을 이루는 특징을 보여 준다. 그 동안 한국의 생태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기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의식에 골몰하여 실제 시에서 자연을 다룰 때, 인간 주체와 대립하는 대상적 환경으로서, 혹은 생물 중심의 생물학적 생태 인식에 머무는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 생태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두진의 자연시가 지니고 있는 생태시학은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환경론이나 생물학적 생명론의 차원을 벗어나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박두진이 무한히 열려진 자연의 초월성을 감지해내는 빛의 감각과 신

명의 서정으로 시의 대상을 접근하면서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의 초월적 영성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인용문헌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2000.
- 최승호 책임편집, 『21세기 문학의 유기론적 대안』, 새미, 2000.
- 박철희편, 『한국문학이 현대적 해석-박두진 편』, 서강대출판부, 1996.
- 최동호,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 문학동네, 2000.
- 이영섭, 『한국현대시 형성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한국기호학회 엮음, 『생태주의와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1.
- 박두진, 『박두진 전집』 10권, 범조사, 1982.
- _____, 『박두진 문학정신』 6권, 신원, 1996.
- _____, 『永時代的인 探究와 當時代的인 對決』, 『韓國現代詩人論』, 일조각, 1970.
- David, Mazel. Ed., *A Century of Early Ecocriticism*.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1.
- Leonard M. Scigaj. *Sustainable Poetr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9.

[Abstract]

Ecological Poetics of Light and Sinmyeong

A Study on Park Dujin's Nature Poems

Young-Sup Lee
(Kyungwon University)

Park Dujin has written the nature poems through his keen sense for light and the emotion of Sinmyeong (the excited and enthusiastic mind) from his early poetry to his later poetry. His poetic emotions, with the periods of his composition of poems, are expressed in the juxtaposition of the waiting for something or the existential agony with the devout faith. But he has pursued the monistic nature through the emotion of light and Sinmeoung. Therefore all his poems are characterized as the nature poems which expose the artistic wholeness transcending the ideology and spirit of his times.

Up to the present, Korean ecological poems have been absorbed in examining and criticizing the crisis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Therefore Korean ecological poems could not get out of the dualistic ecological consciousness of the opposing environment confronting between man and nature. The ecological peculiarity in Park Dujin's nature poems is not the level of the man-oriented environment or bioecology but the monistic nature which man and nature are unified. This fact can be said to be caused by the approach to the objects on the basis of the sense for light and the emotion of Sinmyeong which perceive the transcendental nature.